

# “야외방치 역사에 큰 죄”

## 수요 인터뷰

경천사지 10층석탑 보존책임  
국립 문화재연구소 김동현 소장

- 경천사지 10층석탑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959년 아르바이트로 고건축전문가 임천선생(작고) 밑에서 경천사지 10층석탑의 복원작업에 참여한 것이 문화재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경북 공회당에는 수백편으로 조각난 경천사지 석탑이 널려 있었는데, 제 손으로 탑 부재를 일일이 살펴보고 도면을 그려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건축에 관심이 간 것입니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중

안전하게 안치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실내전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금이 가고 녹아내리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을 야외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실내전에 따른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존과학실은 갖가지 실험과 보존처리를 통해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 박물관 설계에도 탑을 안치할 공간을 따로 마련,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온습도 변화대비·설계공모등 ‘반전’

양박물관, 서울대학교, 문화재관리국을 거쳐 이곳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들어왔죠. 문화재와 함께 삶을 산 지도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군요.

-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제대로 복원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 손으로 직접 다시 세운 탑 인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원작업에 대한 관심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철저한 보존처리를 통해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복원할 생각입니다. 실내로 이전되는 것이 다행입니다. 정년퇴임 하더라도 새 국립중앙박물관(2003년 완공예정)에 탑이

- 경천사지 석탑과 재질이나 형태면에서 유사한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원형 그대로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 문화재 보존철학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원각사지 석탑처럼 수명을 다했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죠. 원각사지탑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대리석으로 조성돼 산성비에 쉽게 피해를 받습니다. 이럴 때 보호각이 필요한 겁니다. 보호각 설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각 의견을 수렴, 설계 공모 심의를 거쳐 국민들의 전

불자들은 발원했다.

종립 동국대학교에 불교음악과가 개설돼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기를.

4월 29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이 개원 3년만에 마련한 부처님오신날 불교음악회는 그러한 면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엠버서더 호텔 대연장에서 문화예술대학원 식구들이 열연한 음악회는 동국의 소리이자 우리의 소리' 무대였다.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심청가중에서 심봉사 눈뜨는 대목은 그대로 범문였다. 심봉사 눈뜸은 곧 무명중생이 밝은 세계를 보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심봉사 덕분에 여기저기서

소리가 돼 소리있으면서 소리없는 세계로 이어졌다. 그것은 물이의 경지였다. 우리의 소리를 사랑하는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이 객석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문화예술대학원장 홍윤식교수는 춤을 추었다.

김성녀씨가 새로 취임한 '미륵님 오신세' 부처님 오신날' 등을 부르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송석구 총장과 새찬불가 가사를 쓴 목정배 교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이 거룩한 법석을 증명했다. 불심론독한 김흥국의 사회도 일품이었다.

“내년부터는 열연음악회처럼 개최합시다.” 객석은 이구동성이었다.

그렇다면 불교계가 함심해야한다. 불자기업들은 문화예술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야하고, 불교TV·방송도 함께 진행하고 사찰·사부대중도 동참해야 한다.

익은소리·심연의소리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동국의 소리'는 곧 '우리의 소리'로서 전국에 내걸린 연등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 목어

### 동국의 소리 우리의 소리

‘계평’으로 논쁜 소경들, 송석구총장은 그들을 부처님 덕분에 복덕누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비유했다. 관련악과 어류인 김영일의 ‘탐돌이’와 김태곤의 ‘나무석가모니불’은 청중을 한목소리로 화합시켰다. 박범훈교수의 지휘봉은 때로 숨죽여 선전에 드는가 하면 춤을 추며 선율을 이끌었다. 김덕수씨의 사물놀이는 안이비설신의 6근 즉 온몸으로 연주하고 온몸으로 듣게했다. 사물의 어둠은 한

체의사를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간 우리의 문화재정책은 사전예방보다 일이 터지고 나서 땀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상들의 대담성과 끈기함을 망각한 채 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 어느 민족이 고유의 훌륭한 문화를 간직하고 재창조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과거 조상들의 숨겨진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올바른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윤기석 기자



국보 86호 경천사지 10층석탑.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특이하고 세련된 기교를 보이고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원래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부소산 경천사에 있었다.

1909년 당시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1918년 반환되어 경북공 근정전 회관에 방치됐던 것을 1960년 보수복원을 거쳐 경북공 뜰에 안치했다. 이런 수난속에서 각 부재는 파괴되고 조각은 마멸되었으며, 사리장엄구의 내용과 장치법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한 훼손이 심해 1995년부터 해체복원되는 비운을 맞고 있는 것이다.

석탑 전면에는 영산회, 삼세불회 등 심의회상

### 경천사지 10층석탑 수난사

- 1909년 日 불법 반출
- 1918년 반환 경북공 방치
- '60년 보수복원... '95년 해체

(十二重相)을 빈틈없이 새겨 놓았다. 각층의 옥개석에는 지붕모양과 기와골, 공포 등이 표현돼 마치 화려한 전각(殿閣)을 연상케 한다.

밀교의 만다라적 표현이 강한 이 석탑의 건립연대와 조성배경은 초창탑사에 새겨진 조탑명(造塔銘)·탑을 세우게 된 경위를 적어놓은 글)에 의해 지정(正)8년 즉 고려 충목왕4년(1349)에 원황실과 고려왕실의 복수(福壽)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염원하며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석)

# “종단별 초파일 행사 국민축제 이끌수 있나”

불교계 종단들의 분열상이 심상치 않다. 올 봉축행사가 거의 조계종만의 집안행사로 끝나고 있는가 하면, 북한주민들이 성금모금도 2일 현재까지 개별 종단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등 각 종단간의 통상이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을 제외한 천태종 등 20여 종단이 소속된 종단진흥회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대법회를 개최했다. 예년과 달리 올 봉축행사는 조계종을 제외한 종단 대부분이 불참을 선언, 반쪽행사로의 전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물론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

말게 되면서부터다. 그러나 그 내면적 이유를 들춰보면 반쪽 봉축행사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종단협의회가 그동안 조계종 위주로 운영돼 온데 대해 불만이 쌓여 있던 타종단이 '조계종 주최 봉축행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해서 봉축행사가 '반쪽'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조계종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시각 또한 만만찮다.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간 데 대한 여타종단들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는 것이다.

### 조계종 연등축제 단독진행

### 종단진흥회 1일 봉축대법회 개최

### 북동포돕기 성금모금도 각자 추진

남이 법요식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제등행렬에는 참여하지 않고, 종지종보문종 서울 경기지역 사찰이 참여한 다고는 하나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1인 종단진흥회가 개최한 봉축 대법회는 명분은 국태민안 및 세계평화 기원이나, 자신들이 표명했던 '조계종 주최 봉축행사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데서 우려했던 종단별 불협화음과 무관치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올 봉축연등 축제는 '반쪽행사'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올 봉축행사가 반쪽행사로 전락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그간 종단별 주최의 관례를 깨고 조계종이 주최를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조계종과 다른 종단들의 불협화음이 이에 그치지 않고 종단마다 독자적 활동을 촉발시키는 속도로 작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대접은 대접대로 맞고 그렇다고 종단의 위상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화합을 부르짖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모 종단 한 관계자의 말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합'이 우선이었는데 이의는 다는 종단은 없다. 그러나 각 종단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 최대의 명절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피크인 연등축제가 국민적 축제로 확산되기는 커녕 불자들조차 각각 행사로 치러다 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여론이다.

한명우 기자

### 5월 초의스님의 달



초의스님

### '97 문화유산의 해

### 5월 테마여행 - 대흥사 · 일지암

### 禪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신록의 계절 5월의 문화인물은 한국차문화의 중흥시인 초의스님입니다. 초의스님은 연담스님의 선지(禪旨)를 이은 대선사 일뿐 아니라 조선 후기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 문인입니다. 초의스님은 대흥사 일지암에서 40여년간 머물며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스님은 추사 김정희, 단산 정약용 등 당대 석학들과 긴밀하게 교류했고 따라서 일지암은 불교와 유학이 자연스럽게 사상·문화적으로 접목 발흥된 산실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서산 사명 처영 스님 등 고승 대덕들의 부도와 비가 무려 60기나 되고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해 조선 후기 불교의 중흥을 이룬 대가입니다. 25

추적: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우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 ‘불교문화 테마여행’

일은 제17회 '차(茶)의 날'입니다. 차의 날에 서산·사명대사와 초의선사를 추모하며 차향 가득한 해남으로 떠나보시죠.

### 참가 안내

- 0일 정: 5월 24일(토)~25일(일) (무박 2일)
- 0출 발: 5월 24일(토) 저녁10시 · 조계사 앞
- 0안 내: 여연스님(일지암 주지)
- 0회 비: 4만원(사찰에서 아침·점심 공양)
- 0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성정호)
- 6월 29일 부석사 -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 7월 27일 해인사 - 나무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



국내최초 실내 선텐, 아늑한 휴식공간, 초대형 목장, 흥분한 주차공간, 노천탕

## 체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포천 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일동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일동 사이판

- 유 황 천**  
국내최고의 유황천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잇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과 휴양 레저를 겸해 온가족이 함께 유황천의 신비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 사찰 및 포천군 관광 안내**  
관 심 원 사 : 지장보살도량(동송유)  
관 도피안사 : 비로자나불(철불) 부처님이 계신곳  
관 원 아 사 : 청정기도도량 (0353)58-8995(상해계곡) ※ 철새도래지  
■ 포천군 관광 안내  
산정호수, 백운계곡, 운악산, 청계산, 관음산, 명성산, 왕방산, 국망봉, 금수산, 고석정, 재인폭포, 안보 관광지(양굴)
- 신 토 불 이**  
강원 철원지방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봄채소, 싱싱한 과일등 황토장도 마련되었습니다.  
■ 교통편  
· 시외버스 : 성평터미널, 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하차  
· 자가운전 43번국도(포천-38교-성동삼거리 우회전4km)  
47번국도(회계원-광릉입구내리-일동-산정호수방면4km)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일리 705번지  
(0357)536-2000, 2035